

도로위 저승 사자 '블랙아이스' 주의보

영주-영천고속도로 다중추돌 7명 숨지고 32명 부상 대형사고
광주도 잇단 도로 결빙사고
결빙구간 등 관리·주의 요구

도로 지뢰인 '블랙 아이스' (Black Ice)의 계절이 왔다. 지난 14일 새벽 4시40분 경북 군위군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20여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주말 겨울철 도로 복병인 '블랙 아

이스' (Black Ice)로 인한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도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00여 건 이상 발생하면서 블랙 아이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 겨울 수일 간격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상습결빙구간과 경사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블랙 아이스는 상습결빙구간의 경우 다른 곳보다 그늘이 지고,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 도로 노면에 남아있던 습기가 얇은 검은색 살얼음으로 변해 눈에 보이지 않아 '도로 위 암살자'라고까지 불린다. 1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광주시에서 서리·결빙으

로 인한 노면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4건이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7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92건 ▲2015년 39건 ▲2016년 102건 ▲2017년 67건 ▲2018년 84건 등 한해 평균 76.8건에 달했다. 지난해 지리별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동구 1건, 서구 21건, 남구 6건, 북구 24건, 광산구 32건 등으로 총 142명이 다치고 이중 1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등은 정체·고립·상습 결빙 지역 및 취약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해마다 블랙 아이스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수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7시40분께에 장흥군 장동면 인근 남해고속도로 장동 2터널(영암 방향 49km 지점) 인근에서는 17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1t트

럭이 앞서가던 5t트럭 뒤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서로 들이받으며,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낮은 눈이 '블랙 아이스'로 변해 출근길 사고를 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운전자들에 따르면 무진로 어등대교, 남구와 광산구를 잇는 승용교, 신가동광신대교, 극락교, 광주대에서 화순 도곡방면으로 향하는 칠구재 터널 인근도로 등이 블랙 아이스 상습 발생구간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한 도로교통전문가는 "운전자들이 '블랙 아이스' 도로를 지날 경우 순간적으로 당황해 급제동을 하거나 급하게 핸들을 꺾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서 "결빙구간을 지날 때 감속 운전은 기본이다. 지자체에서도 결빙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지난 14일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해질 17:22 달뜨기 21:30 달지기 10:57

낮기는 포근
구름 많다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광주	흐림	5/16	보성	흐림	2/14
목포	흐림	7/13	순천	흐림	3/15
여수	흐림	7/14	영광	흐림	5/15
나주	흐림	5/16	진도	흐림	7/15
완도	흐림	7/15	전주	구름많음	4/16
구례	흐림	1/15	군산	구름많음	3/15
강진	흐림	5/15	남원	구름많음	1/15
해남	흐림	5/15	흑산도	흐림	10/15
장성	흐림	3/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면바다(서)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남해서부	안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서)	동~남동	1.0~1.5	남동~남	1.0~1.5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	----	----	-----	----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8 22:32	04:34 17:22
여수	05:19 18:02	11:58 --:--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	☁	☁	☀	☀	☁	☁
9/14	5/9	1/8	-1/8	-1/7	0/8	1/10

내일 한 차례 비온후 초겨울 기온 회복

이번 주 광주-전남은 화요일 한차례 비 오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주초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지만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한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아침최저기온은 0-7도·낮 최고 기온은 13-16도가 되겠다며,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분포하겠다. 특히 17일 오후에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9-14㎞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3m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남해상에는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황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동구 폐지 줍는 어르신 141명 야광조끼 지급

광주시 동구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 141명에게 야광 안전조끼를 보급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도로, 골목길, 주택가 등을 돌며 폐지 줍는 어르신을 일제 조사한 결과 141명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끼를 제공했다. 동구는 겨울철에 안전조끼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통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임신·출산한 학생에 요양기간 보장해야”

“학업손실 다양한 방안 마련”
인권위 교육부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입산부의 학습권과 요양기간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 입산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고, 출산 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에서 요양 후 학업 등을 지속하고 자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청소년 입산부가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청소년 입산부의 출산 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

18일 남구청 대회의실

광주시 남구가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정시 모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 '2020학년도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7시께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정시 최종 지원전략 설명회가 열린다. '2020학년도 성공적인 정시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장과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박중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진로진학센터장을 초빙해 90분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치러진 수능 출제에 대한 경향 분석을 비롯해 정시 지원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례를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주민이라면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지역내 학생들이 전국 상위권 대학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